

69시간

손택수
시인

수염이 째깍거린다
시계가 턱에 걸려있다
아침에 깬 수염이 까끌해 오면
오후가 지났다는 신호다
초침이 살갓을 뚫쳐나왔다면
퇴근시간이 임박했기 때문,
잘 간수하고 있던 표정이 일그러지고
눈언저리 근육이 실룩이면
자정이 가까웠다는 뜻
불면증 치료를 받기 위해
시간외수당을 번다
어릴 땐 잠보였는데
나는 그때 어마어마한 부를
쌓고 있었나 보다
턱, 턱 숨이 막혀온다
다시 알람을 맞추듯
책상 서랍 속의 전기면도기를 돌린다
69시간이라니 망측하게,
69엔 노동도 성도 없다
나의 수염 시계, 턱은 시방
언제 터질지 모르는
시한폭탄이다